

창작의 산실을 가다 <5> 화가 정송규



'생명의 오케스트라'

■ 약 력

▲1944년 나주시 봉황면 출생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2005년 한국미술협회광주지부 부회장 ▲2006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작가 ▲11차례 개인전, 한국여류화가전, 아텍스 도쿄(일본) 등 20여차례 단체전 ▲현재 무등현대미술관 관장

해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싸주다 시간이 되면 붉게 저물 뿐이다. 해가 지나가는 길에 꽃이 피고, 어린 나무가 이파리를 키우면 우리는 '고마운 해가 지나갔구나' 하고 느낄 뿐이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성촌마을은 해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조각보를 화폭에 담고 있는 중견 서양 화가 정송규(65)씨가 해를 쫓아 지든 곳도 이곳이다.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정송규 관장이 전시 중인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무등산 자락에 예술의 꽃을 피우다

햇살 풍부한 성촌마을에 2007년 미술관 열고 작업 공공미술 프로젝트·전시회 등 예술촌 만들기 앞장

정 화백은 지난 2007년 성촌마을 길가에 무등현대미술관을 냈다. 미술관 1층은 전시실, 2층은 그녀의 작업공간이다. 그녀는 무등산이 한눈에 올라다 보일 수 있도록 작업실에 큰 창을 냈다. 아침햇살과 저녁놀이 넉넉하게 흘러들게 곳곳에 작은 창을 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성촌마을은 해에 맞춰 시간이 흐른다. 무등산 자락에서 밤을 보낸 참새가 재잘거리면 아침해가 뜬 것이다. 해가 제법 떠오르면 아이들이 아우성치며 인근 초등학교로 달려간다. 이어 마을의 노인들이 말뚝을 찾아 마을 입구로 모여들면 해가 살짝 서쪽으로 기운다.

그녀는 작업실 창으로 마을의 모든 변화를 눈에 담는다. 그녀가 작업실을 찾기 위해 6개월 동안 발품을 판 끝에 성촌마을을 선택한 것은 풍부한 햇빛과 이곳 주민들의 평온한 모습 때문이다.

미술관을 건축을 전공한 그녀의 딸(34)이 설계했다. 무등산 자락의 고운 자태를 망치지 않도록 건물의 크기와 외형을 최소화시켰다. 또 식당 영업을 하는 뒷집 간판이 가리지 않도록 건물의 한쪽 높이를 낮게 했다. 해처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잠시 이곳에서 머물다 가기 위한 그녀의 바람이 담긴 건물 설계다.

성촌마을은 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 속 농촌 같은 곳이다. 과수원집 딸이었던 그녀는 고향인 나주시 봉황면의 풍경을 화폭에 담을 때가 많다.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린 시절의 고향마을 언덕은 그녀 작품의 근원이다. 이 때문에 따뜻한 정서와 풍경이 남아있는 성촌마을은 그녀의 제2의 고향이다.

그녀는 초기에 정물·인물화를 주로 그렸고, 1997년 이후에는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한 연작을 내놓고 있다. 가족을 위해 물을 길고, 밥을 했던 어머니들의 삶이 곧 예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매일 반복되던 어머니의 삶은 조그만 면의 조합으로 표현했다.

"단순한 면이 배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하루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듯 내 작품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의 삶을 한 땀 한 땀 새긴 조각보입니다."

하지만 얘기 새끼손톱보다 작은 면을 정성스럽게 그려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붓의 작은 흔들림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그나마 '창작의 산실'이 아담한 마을에 위치해 있어 위안을 받을 때가 많다. 그녀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성촌마을 일대를 산책한다. 이끼 낀 돌담 아래 웅기종기 늘어선 장독과 봉송아꽃이면 지친 눈을 풀기에 충분하다. 제법 마을 주민들과 안면을 익혀, 눈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길어졌다. 말쑥꾸러기 아이들은 귀가하는 그녀를 따라와 미술관에서 한참을 놀다 가기도 한다.

지난해 이 마을의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낡은 가로등에 색을 입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이 마을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지난해 이곳에서 '성촌마을에 달이 뜨다' 행사를 열었다. 지역 여성 작가들의 전시회와 성촌마을 벽화그리기와 솟대 세우기, 마을 어린이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술의 향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소장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자신의 예술 인생을 점검하고, 새로운 미학을 찾기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은 화가의 자화상이다. 화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림의 색이 달라진다. 화를 내면 강하게, 평온하면 부드럽게 화가를 닮아버린다. 삶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작품을 그리고 싶다."

그녀의 또 다른 소망은 성촌마을을 예술촌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지역의 여성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의 소중한 발표 무대가 되고 있다. 또 성촌마을에 빈집이 많은데, 이곳에 젊은 작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녀의 꿈이다. 작가들이 몰리고, 곳곳에 작업실이 자리 잡으면 예술인과 주민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허백련 선생의 예술혼이 깃든 무등산 자락이 남도의 대표 문화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무등현대미술관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젊은 작가들에게 더 많은 전시 기회를 주고, 나 또한 더욱 아름다운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공략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187경남은행대우점 (062) 227-9940

총장점 금곡광안점 (062) 227-9970

www.kitr.com

서해안의 중심도시, 전남 무안을 주목하세요!

아름 : 무안읍에 위치한 무안읍은 무안군의 중심지로서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유산이 가득합니다.

땅 : 무안군은 무안읍을 중심으로 무안군 전체를 아우르는 무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다 : 서해안 무안읍은 무안군을 아우르는 무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안 관광센터 061)450-5114